

# 자충수 vs 혁신... 카드업계, '애플페이 도입' 갑론을박

신한·국민, 애플페이 도입 압박  
현대카드와 점유율 경쟁 예고  
수수료 부담에 수익성 우려 속  
해외여행 시장 판도변화 기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카드업계는 사업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드 자체 플랫폼인 '솔페이' 앱에 애플페이 등록 화면이 등장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에 관한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 이후 추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달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에 진입하면 현대카드 이후 2년 만에 2번째 카드사가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란 입장이다.



Chat GPT가 생성한 '애플페이에 진입하려는 카드사' 이미지.

앞서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 설도 확산했다. 지난해 8월 한구인구직 사이트에 'KB국민카드 애플페이 구축-태담 경력자'란 제목의 인력충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다. KB국민카드 또한 결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애플의 비밀유지계약(NDA)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신규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2년간 이어졌던 현대카드의 독주가 깨진다. 상위권 카드사의 진입이 유력한 만큼 아이폰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점유율 경쟁이 예상된다. 점진적으로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할 것이라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애플페이 도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 의견이다. 올해는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이 이뤄졌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40%다. 현대카드가 애플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15%로 전제된다. 수수료 수익의 최대 37.5%를 애플에 제공하는 셈이다.

별도로 국제브랜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있다. 애플페이는 EMV(유로·마스터·비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이 있다. 일각에서는 '헤지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간접적인 피해는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 입장에서 경쟁사 대비 선제 진입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신한 솔 트래블 체크·신

용카드를 출시했다. 애플페이가 해외 결제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상호작용할 것이라 해석이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승인잔액은 3조3524억원이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M/S)을 차지했다. 현대카드의 아멕스카드와 애플페이 조합으로 2년 연속 신용카드 해외승인잔액 1위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 또한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독인효과'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카드는 신규회원 78만4000명을 유치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력을 나타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진입이 예상된다"며 "신한·KB국민카드 모두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득실을 철저히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입주 시작했지만... 상업시설·교통 인프라는 '미완'

### 부동산 현장 르포

####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공실·지하철 공사 지연에 불평  
PM사 vs 조합, 상가 가압류 논란도  
집값은 강세 전용 84㎡ 호가 27억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본격적인 입주를 진행 중이다.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지난 11일 찾은 단지 곳곳에서 이삿짐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단지 내 상업시설과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상가 공실, 지하철 연결 지연, 가압류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집값은 강세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호가가 오르는 중이다. 전용 84㎡ 호가는 27억원대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율은 약 75%로 지난해 말 30% 수준에서 빠르게 올라갔다. 입주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이유는 오랜 입주 대기 수요와 매매·전세 시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의 안정세가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2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업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입주 후 생활이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내 핵심 상업시설인 '포레온스테이션 5'의 1층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다. 불이 꺼진 점포들 사이로 '임대문의'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A씨는 올파오의 상가 임대료(평당 기준)는 2~3층(약

30만~35만원)과 1층(약 60만원)이 두 배가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2~3층에는 병원, 태권도 학원 등 교육·의료 시설이 70~80% 입점했지만 1층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공실이 많다"고 말했다. 상가 입점은 3월 말 잔금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까지 대부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문제도 입주자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하철 5호선 둔촌주공역과 맞닿아 있으며 당초 2번 출구가 단지 내 상가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완료



공사 중인 둔촌주공역 2번 출구.

/전지원 기자

될 계획이었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완공 시점이 5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B씨는 "출퇴근 시간이면 먼 길을 돌아서 이동해야 해 입주자들의 불편이 크다"며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입주자들의 실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올파오 상가를 둘러싼 가압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가 재건축관리사(PM) ㈜리츠인홀딩스는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지만 조합 측은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상가는 신탁 재산이므로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가압류·전세권·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가압류가 가능하려면 정확한 손해가 발생한 이후야 하지만 현재는 최종 정산 전 단계라 법적으로 가압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PM사가 조합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실제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과 PM사 갈등의 핵심은 상가 분양 수익 180억원의 배분 문제다. 조합에 따르면 PM사는 상가 분양으로 얻을 예상 수익 중 180억원이 조합원들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생기자 반발하고 있다.

PM사는 "이 금액은 본래 PM사가 가져야 할 몫"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 예고한 것이고 조합은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PM사가 미리 손해를 예단해 가압류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협박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결국 가압류 논란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협박성 조치이며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LH, 올해 2000억 규모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모

전국 72개 블록 대상 63건 공모  
상반기 중 모든 설계 공모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72개 블록, 2000억원 규모로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모 건수는 총 63건이다. ▲광명시흥 S2-1BL(1742호, 60억원) ▲고양창릉 S-9BL(1519호, 52억원)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72개 블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보다 8000호 늘어

난 6만3000호 수준이다.

LH는 투자비 적극 집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모든 건축설계 공모 추진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 남양주 왕송 A-6BL(973호, 20억원) 등 3건(2000호, 69억원)을 추진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양창릉 A-6BL(643호, 29억원) 등 14건(1만3000호, 398억원), 4월에는 경산대인 A-4BL(641호, 22억원) 등 총 46건(4만7000호, 1524억원)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LH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공모방식을 다변화한다. 일반공모와 설계 주체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제안공모도 함께 추진하며, 사업 대상지 중 동일 택지 내 인접블록, 유사 사업유형 등의 경우에는 통합공모 방식도 활용한다.

LH는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 등 주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설계공모도 추진한다.

## 강호동 회장, 쌀 소비촉진 예금 1호 가입

(NH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공익특관예금 'NH더 든든밥심예금Ⅱ' 출시를 기념해 강호동 NH농협중앙회장이 1호 고객으로 상품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NH더 든든밥심'에 이어 출시한 NH더 든든밥심예금Ⅱ는 쌀값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돕고 아침밥 먹기를 통한 고객의 건강한 하루를 지원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 판매한다.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2.6%로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금리 3.1%(최저 2.6%)를 적용한다. 또한 고객의 상품가입에 따라 우리 쌀을 적절히 판매 종료 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